

<성명서>

원유가격 협상을 바라보는 강원도 낙농인의 입장

1. 금년 원유가격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업체는 협상범위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 파기를 큰 무기 삼아 앵무새 같은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우리 강원 낙농인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2. 대한민국 낙농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 증가, 출산을 저하 및 대체음료 등장에 따른 흰우유 소비감소로 국산우유자급률은 48.5%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도입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 장비투자 및 주기적인 사료값 인상으로 낙농가들은 생업포기를 강요받고 있다.
3. 우리 낙농인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살 길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생산비를 보전하는 차원으로 낙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흰우유 적자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외면하는 것은 겉으로 '상생'을 외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4. 낙농가 없이 유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 낙농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참고 기다릴 수도 없다. 유업체는 지금부터라도 규정과 원칙에 의거해서 유업체 대표가 협상장에 나와 협상범위 안에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유업체가 낙농가와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우리 강원 낙농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강경 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0년 7월 17일

한국낙농육우협회 강원도지회

(TEL 033-761-1780 / FAX 033-761-1781)